

FAOSTAT를 통해 본 주요국의 육류 생산자 판매가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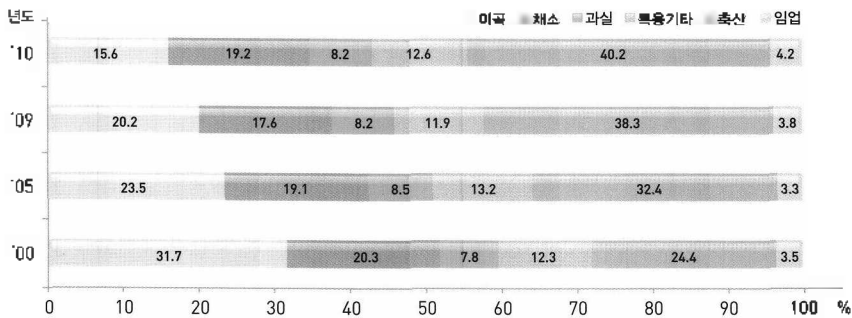
평가사업본부 창의사업팀 차장 김성호

○ 국가별 육류 가격정보의 중요성

우리나라 축산업은 그 동안 양적인 측면에서 크게 성장하였으나 사료의 높은 해외의존도, 낮은 생산성, 가축분뇨 처리문 제와 빈번한 가축질병 발생 등 매우 불안정한 구조의 취약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축산업이 발전하기 위 해서는 축산물 유통구조의 합리화 등 질적 발전을 통한 안정화 추구하고 함께 국제 개방시대에 걸맞게 선호·비선호 부위의 효 율적인 수출·입을 통한 가격 및 수급불안을 적극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이 때,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수출·입 대상국가의 가격정보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우리나라 축산업 생산액이 차지하는 비중 추이(양적팽창 예)]



*2010 농업생산액 및 생산자수 산출결과 북, 농식품부(11.9)

○ FAOSTAT PriceSTAT 소개

FAOSTAT 가격(PriceSTAT) 메뉴는 국가별 육류 판매가격에 대해 품목별로 비교해보고, 가격 추세를 살펴보는 등 거 시적인 관점에서 일목요연하게 알기 좋아 종종 접속하게 되곤 한다. 그리고 꼼꼼히 분석해본다. 과연 쇠고기 가격은 어디 로 향하는가? 다른 국가의 동향은 어떠한가? 수입이 늘어야 할까? 어느 국가에서 수입해야 유리한가? 등등 PriceSTAT는 주요 작물, 생축, 축산물을 판매하는 최초 시점¹⁾에 있어 농민이 받게 되는 가격(일명, 생산자 판매가격 producer price으로도 불림)을 기준으로 제공하고 있다. 130개국 이상 총 농업생산가치의 97% 이상을 나타내는 약 200개 상품을 포함하고 있다.

1) 축산물을 판매하는 최초 시점을 어느 시점을 놓고 계산했는지 정확히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FAOSTAT에서 제공된 생산자 판매가격을 지역 시세단위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소·돼지고기 실 가격과 비교한 결과, 도매가격 지역 kg당 가격과 엇비슷하게 나타났다.

본 가격은 3가지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1) 지역 시세단위(Local Currency Unit), 각국 통화기준, (2) 표준 지역 시세(Standard Local Currency), (3) 미국 달러(US Dollars), 환산가격.

여기에서는 주요국 간 생산자 판매가격을 비교해야 함으로 (3)형태인 미국 달러로 환산된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국가별 환율 차이로 인한 가격비교의 오류를 최소화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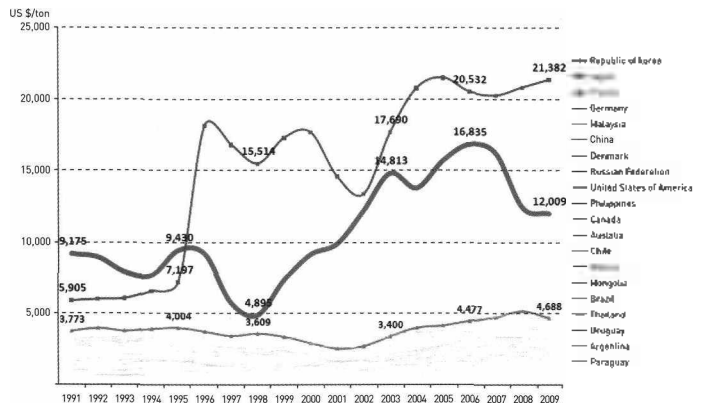
첫 판매시점에 농민이 받게 되는 축산물가격(생산자 판매가격)에 대해 비교해 볼 국가로는, FAOSTAT에서 제공되는 130개국 자료 중 우리나라와 주요 교역국으로서 수출가능 대상국가(필리핀, 몽골, 일본, 태국, 러시아, 중국, 말레이시아 등)와 주요 육류수입국(미국, 캐나다, 호주, 멕시코, 브라질, 칠레) 및 향후 한·EU FTA 타결로 인해 돼지고기 수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EU국가 중 일부(프랑스, 독일, 덴마크)를 선정해서 총 20개국에 대해 살펴본다.

○ 주요국의 쇠고기 생산자 판매가격(Producer Price for Cattle Meat) 동향

주요 교역국 대상으로 쇠고기 생산자 판매가격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초반만 해도 쇠고기 생산자 판매가격이 9,175 달러/톤으로 비교대상국가 중 가장 높았다가 1996년 일본의 급등세로 현재까지 2위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이에 비해 다른 국가들은 일정한 가격대를 급등락 없이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리적 이점이 가장 크고 육류 수요가 높은 일본과의 생산자 판매가격 추이를 살펴보면, 가격급등과 하락이 함께 움직이다가 2002년에 가장 근접한 가격

을 나타냈다. 그러나 2005년 이후 일본의 쇠고기 생산자 가격은 유지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2007년 이후 급락하여 약 10년전 가격으로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여기에서는 가격 급등락에 따른 실패요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이점을 따져 가격 급등락에 따른 선호·비선호 부위의 수출·입에 활용하자는 것임을 잊지 말자. 약 1.7배 높은 가격을 보이는 일본에 우리나라 1**등급 한우고기를 수출해 보자.



[쇠고기 생산자 판매가격 변화 추이(1991~2009)]

FAOSTAT에 지금 바로 접속해 보기

지금 한 번 접속해 보자. 웹페이지를 열어 다음을 쳐보자. <http://faostat.fao.org>. 그 다음 상단메뉴 중 일곱 번째 가격(Prices)을 클릭하여 아래 화면이 보이도록 하자.

[FAOSTAT 가격 조회화면]



이용하고자 하는 대상국가의 아이템(item; 예, 쇠고기 가격), 그리고 연도와 요인(여기에서는 USD/tonne 선택)을 선택한 후 '데이터를 보여줘(Show data)'를 클릭하면, 우측 화면이 나타난다.

country	item	2007	2008	2009
Argentina	Cattle meat	10000	10000	10000
Australia	Cattle meat	10000	10000	10000
Brazil	Cattle meat	10000	10000	10000
Canada	Cattle meat	10000	10000	10000
China	Cattle meat	10000	10000	10000
Denmark	Cattle meat	10000	10000	10000
Germany	Cattle meat	10000	10000	10000
Japan	Cattle meat	10000	10000	10000
Republic of Korea	Cattle meat	10000	10000	10000
Russian Federation	Cattle meat	10000	10000	10000
United States of America	Cattle meat	10000	10000	10000

이제 FAOSTAT에서 제공된 생산자 판매가격을 통해 우리는 거시적으로 주요국의 육류가격 동태를 파악할 수 있다. 이는 교역이 확대되는 현재에 있어 매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주요국의 돼지고기 생산자 판매가격(Producer Price for Pig Meat)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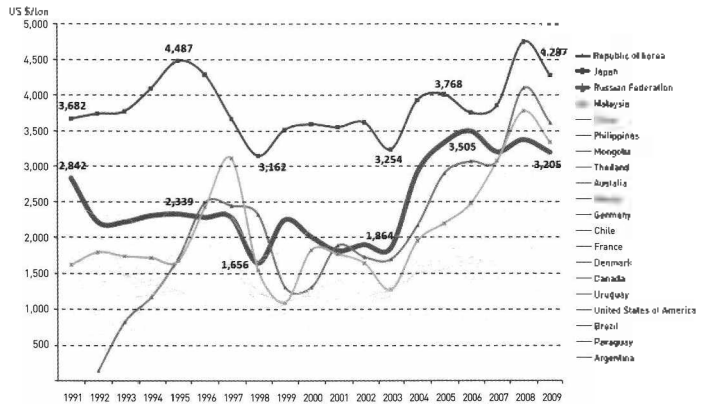
주요 교역국 대상으로 돼지고기 생산자 판매가격을 비교한 결과는 쇠고기와 달리 다소 복잡하게 나타난다.

수급 불안으로 가격이 요동치고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음을 엿 볼 수 있다.

우리나라 돼지고기 생산자 판매가격은 2009년 3,205 달러/톤으로 1991년 2,842 달러/톤과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20년 동안 가격이 급등락한 구불구불한 길을 걸어왔다. 물론, 현재진행형이다.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은 여전히

최대수출국가 중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어 우리나라 비선호 부위의 돼지고기를 수출하기 위한 첫 번째 대상국가임은 분명하다. 두 번째 수출대상 국가는 2007년 이후 우리나라의 돼지고기 생산자 판매가격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는 러시아와 말레이시아로, 해당 국가의 식육 소비문화선호 부위, 요리방법 등에 맞게 수출을 추진해 볼 만하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나라 보다 낮게 가격이 형성되는 국가로부터는 적극 수입을 고려할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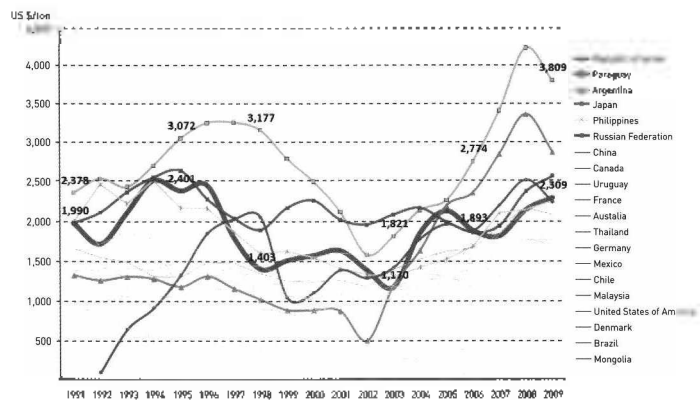
[돼지고기 생산자 판매가격 변화 추이(1991~2009)]

○ 주요국의 닭고기 생산자 판매가격(Producer Price for Chicken Meat) 동향

주요 교역국 대상으로 닭고기 생산자 판매가격을 비교한 결과는 쇠고기와는 말할 것도 없고 돼지고기 가격보다도 더 복잡하게 나타난다.

우리나라 2009년 닭고기 생산자 판매가격은 2,309 달러/톤으로 2005년 이후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일본 등 국가와 가격차이가 더욱 크게 벌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과거에 비해 급등세를 보이는 러시아를 눈여겨 보태, 우리나라와 유사한 가격패턴을 보인 필리핀은 조심스럽게 접근하자.



[닭고기 생산자 판매가격 변화 추이(1991~2009)]

○ 주요국의 육류 생산자 판매가격 비교(2009년 기준)

우리나라 쇠고기 생산자 판매가격은 12,009 달러/톤으로 일본 보다 1.8배 낮고, 프랑스·독일·말레이시아 보다 2.5배 높게 나타났다. 우리나라 돼지고기 생산자 판매가격은 3,205 달러/톤으로 일본·러시아·말레이시아 보다 낮고, 중국·필리핀 등 보다 높게 나타났다. 우리나라 닭고기 생산자 판매가격은 2,309 달러/톤으로 파라과이·아르헨티나·일본 보다 낮고, 필리핀·러시아 등 보다 높게 나타났다.

[주요국의 육류 생산자 판매가격 비교]

(단위 : 달러/톤, % / 비율은 한국을 100으로 기준하였을 때 증감수치임)

구분	일본	한국	프랑스	독일	말레이시아	중국	덴마크	러시아	미국
쇠고기	21,382	12,009	4,688	4,550	4,476	4,246	3,962	3,637	3,404
비율	178.1	100	39.0	37.9	37.3	35.4	33.0	30.3	28.3
구분	일본	러시아	말레이시아	한국	중국	필리핀	몽고	태국	호주
돼지고기	4,287	3,622	3,353	3,205	2,709	2,533	2,437	2,406	2,192
비율	133.8	113.0	104.6	100	84.5	79.0	76.0	75.1	68.4
구분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일본	한국	필리핀	러시아	중국	캐나다	우루과이
닭고기	3,809	2,892	2,587	2,309	2,267	2,257	2,174	2,087	2,047
비율	165.0	125.3	112.0	100	98.2	97.8	94.2	90.4	88.7

우리나라 육류 수출 시 대상국가의 육류소비량이 증가하고 있는지, 아니면 감소하는지, 선호하는 부위는 어디인지, 요리용도는 무엇인지 등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 여기에 더해, 우리나라에서 선호하지 않아 남은 부위를 수출하는 것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다.

○ 주요국의 육류소비량 동향

미농무성 자료(2010년)에 따른 국민 1인당 육류 소비량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1인당 육류 소비량은 58.2kg으로 미국 107.8kg 보다 1.9배 적으며 호주, 브라질, 캐나다, 칠레, EU, 멕시코 등 주요국에 비해 적는데 비해, 뉴질랜드와 일본과 비교해서는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국의 1인당 육류 소비량 비교]

(단위 : kg; 자료기준, 등수 / USDA/FAS PSD Online, 2010년도 기준)

구분	미국	호주	브라질	캐나다	칠레	EU	멕시코	한국	뉴질랜드	일본
육류 소비량(합계)	107.8	92.39	89.26	82.6	77.04	76.2	62.7	58.2	48.7	44.3
쇠고기	소비량	38.5	35.3	37.3	29.5	25.5	16.7	17.7	12.9	28
	(국제순위)	3	6	4	9	12	22	20	27	10
돼지고기	소비량	27.2	22.1	12.7	23.6	22.69	41.8	15.7	31.3	20.7
	(국제순위)	12	18	31	16	17	4	25	10	21
닭고기	소비량	42.1	34.99	39.26	29.5	28.86	17.7	29.3	14	-
	(국제순위)	6	12	9	19	14	29	20	34	-

○ 끝맺음

마지막으로, 한우고기의 등심, 돼지고기의 삼겹살 등 선호부위에 대한 국내 생산량은 소비량에 비해 부족하여 소비량이 증가할수록 생산량도 증가해야 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소비가 부진한 돼지고기의 앞다리살, 뒷다리살, 안심 등과 같은 저지방부위는 돼지고기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과잉생산됨으로써 재고량이 증가하게 되어 결국 국내 축산업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돼지고기 저지방부위 소비에 대한 건강편익(돼지고기 저지방부위 소비의 건강편익 연구보고서, 농식품부, '11.12)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들이 저지방부위를 소비함으로써 얻게 되는 건강편익이 1년 동안 920억 6,400만원 ~ 5,392억 3,000만원으로 도출되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